

직접 쓰고, 찍고, 그리고...그녀의 11년 기록이 담긴 첫 아트북

‘작가’ 심은진 “이제 자유롭게 싶다”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첫 아트북 ‘hello, Stranger’ 출간

“첫 도록 마음에 안들어서 출판 결심
영감을 준 아티스트는 패티 보이드
이 책이 독자들 마음을 도약여주길”

“예를 들어 여기 바닥에 검은 얼룩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확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전 저도 모르게 이 얼룩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얼룩은 어째다가 생겼지?’와는 좀 다른. 마침 옆에 카메라가 있다면, 제가 받은 느낌을 담을 수 있는 각도를 최대한 찾겠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렇게 말해요. ‘안녕?’이라고.”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심은진이 자신의 첫 아트북을 냈다. ‘hello, Stranger(안녕, 낯선 친구)’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다. 직접 쓰고 찍고 그린 글과 사진, 그림을 담은 11년간의 기록물이다. 12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출판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를 며칠 앞두고 ‘작가 심은진’을 따로 만났다. ‘가수 심은진’, ‘배우 심은진’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아트북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주변의 반응이 궁금하다. 특히 베이비복스 멤버들의.
“이걸 내가 진짜 쓰고 찍고 그린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안 쓰고 안 그리

게 생겼나 보다(웃음). 베복(베이비복스) 멤버들은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주고 싶어서 따로 조용히 만나기로 했다. 사실 우린 뭐 유난 떠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트북을 낼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나.
“2013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무렵부터다. 이 책에도 개인전 때의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당시 만들었던 전시회 도록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출판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또 전시를 하더라도 내가 쓰고 그린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된 거다.”

-한 번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기는 힘이 뛰어난 사람 같다.

“마음 한번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잡으면 한다. 하지만 마음이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싹 할 수 있는 일인데, 버튼 하나 누르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더라(웃음).”

-노래, 춤, 연기에 글과 그림, 사진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멋진 재능을 가진 사람이 걸그룹 할 때는 어떻게 누르고 살았나.

“그래서 핏병이 생겼나보다. 몸으로 왔다(웃음). 그때는 그냥 일기를 썼다. 멤버들도 내가 매일 다이어리 들고 다니며 뭔가 끄적이는 걸 다 봤다. 그런데 베복 시절 다이어리를 도둑맞는 사고를 당한 뒤부터는 컴퓨터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초는 싸이월드였다.”

-‘작가 심은진’에게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가 있을 텐데.

“패티 보이드와 소파 캠프(프랑스의 사진작가이자 개념미술가)이다. 최근 패티 보이드의 전시를 봤다. 딱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더라. 난

이제 좀 자유롭게 싶다. 그 시기가 왔다고 본다.”

-사진과 그림을 보면 어딘지 시간이 정제된 느낌을 받게 된다. 우울하기도 하고.
“감정이 그랬던 거다. 그럴 때만 카메라를 들었다. 난 여러 개가 있는 것에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 똑 떨어져 있는 것, 하나만 있는 것, 뾰족한 것. 생각해보면 도형도 네모나 동그라미보다는 세모를 좋아했던 것 같다. 내 그림에는 남자가 별로 없다. 대부분 여자가 등장한다.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책 속에는 ‘너’, ‘누군가’, ‘당신’이란 존재가 애증의 대상으로 다수 등장한다. 그동안 열애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 아닐까”하는 선입견을 갖고 보는 독자들도 있을 듯한데.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당연히 예상했다. 실은 지인들도 많이 물어본다.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아닐까.”

이 책의 서문에 심은진은 “내가 모든 슬픔, 아픔, 기쁨의 순간에 기록해두었던 모든 것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주문을 걸어두었으니, 한순간이라도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이라고 썼다. 인터뷰를 마칠 즈음 심은진은 “내가 한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해 올곧이 서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 책이 여러분을 도약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심은진의 위로는 그가 책에 쓴, 내 멋대로 제목을 ‘핸드크림’이라 붙인 글처럼 따뜻하고 촉촉했다. 고마웠다.

ranbi@donga.com



▶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심은진이 11년간 쓰고 찍고 그려온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은 첫 아트북을 출간하고 독자들에게 “안녕” 인사를 건넸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영화 · 콘서트 보러갈까



●카3:새로운 도전(13일 개봉 | 감독 브라이언 피 | 목소리 연기 오웬 윌슨·크리스 쿠퍼 | 109 분 | 전체관람가)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레이싱의 전설 맥퀀. 어느 날 첨단기술로 무장하고 화려하게 데뷔한 스톰과 경기 도중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다. 절망에 빠진 맥퀀은 실력 있는 트레이너 크루즈를 만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만, 이들의 성격은 너무 달라 오히려 또 다른 위기를 맞는다. 2006년 처음 나온 1편의 성공 뒤 2011년 2편을 잇는 세 번째 시리즈. 의인화한 자동차들의 모험과 도전이 여는 극영화 못지않게 짜릿하다. 시리즈 가운데 가장 탄탄한 완성도를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알리 ‘알리자 콘서트’(15일 오후 7시30분 |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 120분 | 만 7세)

알리의 첫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 독보적인 가창력과 명품 보컬다운 무대매너로 관객의 환희를 이끌어내는 알리는 이번 공연에서 화려한 금빛 디바로 변신해 라이브 밴드와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알리를 애절한 음색의 발라드 가수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색적으로 비춰질 만큼, 방송무대에서는 보기 힘든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볼 수 있다. 관객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감미로운 무대와 함께 파워 넘치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디바의 위엄을 뽐낸다. 02-512-9496.



지방여행을 하다 식당에 들면 때면 소박하고 투박스럽지만 어쩐지 정겨운 ‘고향 밥’ 같은 메뉴를 기대하게 된다. 산 좋고 물 좋은 경북 청송에도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향토 맛집이 있다. 신촌약수 명궁가든의 누룽지백숙(왼쪽)과 주왕산 입구 청송식당의 산채백반.



산 좋고 물 좋은 경북 청송에도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향토 맛집이 있다. 신촌약수 명궁가든의 누룽지백숙(왼쪽)과 주왕산 입구 청송식당의 산채백반.

신촌약수로 만든 ‘누룽지백숙’, 여름 보양식의 지존

톡 쏘는 맛이 인상적인 청송 대표 약수 함께 나오는 닭가슴살 불고기도 별미
주왕산 산채 더덕구이 정식도 엄지척

지방 여행에서 식당을 들릴 때 기대하는 것은 화려하고 세련된 메뉴가 아니다. 소박하고 투박스럽지만 어쩐지 정겨운 고향 밥 같은 정서다. 거기에 그 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식재료나 조리법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번엔 산 좋고 물 좋은 동네, 경북 청송을 여행하며 찾아간 집도 그런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향토 맛집이다.

●신촌약수로 만든 누룽지백숙. 그리고 닭불고기와 닭날개봉

청송에는 톡 쏘는 탄산의 맛이 인상적인 약수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약수터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청송읍 부근의 달기약수이고, 다른 하나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동청송IC 근처 진보면의 신촌약수이다. 두 곳 모두 닭백숙을 대표 메뉴로 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다.

누룽지백숙은 신촌약수에 있는 ‘명궁가든’의 시그니처 메뉴이다. 사실 백숙은 전국구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음식

이다. 명궁가든의 누룽지백숙은 두 가지 점에서 이채롭다. 우선 누룽지백숙을 시키면 닭가슴살만 따로 때어 만든 불고기가 함께 나온다. 석쇠에 바삭 구운 연양불고기 스타일이지만 양념이 된 것이 다르다.

백숙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지역 특산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일품이다.

제법 큰 투가리에 담겨 나오는 누룽지백숙은 모양새부터 특이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백숙인지 가늠이 잘 안된다. 푹 끓인 누룽지에 닭이 넓게 얹혀져 있다. 투가리 한 편에 있는 가는 뿌리 같은 것은 산삼배양근이라고 한다. 비주얼은 꽤 카리스마가 있지만, 맛은 의외로 순하다. 요즘 ‘건강한 맛’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심심함인데, 먹다보면 손이 자꾸 가는 중독성을 느낀다. 성인 남자들끼리 가도 꽤 버거울 정도로 양도 푸짐하다.

별도 메뉴로 닭날개봉 구이도 있다. 백숙, 불고기와 함께 주문하면 한 여름 보양 상차림으로 더할 나위가 없다.

●주왕산 산채 더덕구이 정식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앞에는 다른 국립공원 입구처럼 많은 향토식당들이 어깨를 맞대고 모

여 있다. 대부분 주력 메뉴가 백숙이나 산채백반, 비빔밥 등인 것도 비슷하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칫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그래서 청송군 관계자에게 물어 추천을 받은 곳이 ‘청솔식당’이다. 역시 간편메뉴는 달기약수로 만든 오리, 닭백숙. 하지만 깔끔한 찬과 주인공이 직접 담갔다는 된장찌개가 인상적인 산채정식도 맛있다.

산세 깊고 공기 맑은 주왕산에서 채취한 각종 산나물을 중심으로 더덕구이가 함께 나온다. 주인공이 날을 정해 직접 주왕산과 주변 산에서 나물을 채취한다고 한다. 어수리김치, 뽕잎장아찌, 박잎장아찌, 곰취김치, 당귀김치 등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찬들로 상이 꾸며진다. 청국장도 국내산 콩으로 직접 집에서 콩을 띄워 만들었다고 한다. 무공해, 자연산을 강조하면 자칫 맛이 심심할 수 있는데, 이곳 산채정식은 장아찌나 김치로 담근 것이 많아 그런지 짭조름하다. 흔히 말하는 ‘밥도둑’ 계열의 간이다.

전체적으로 좋은 식재료가 주는 신선한 식감과 산나물의 향긋한 내음이 잘 어울린다. 주왕산 산행길에 한번 경험하면 좋다.

청송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책 읽는 주말

●비창(이병주 저 | 나남)



한 시대를 품미한 가장 이병주의 장편소설 ‘비창’이 33년 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왔다. 비창은 1984년 출판돼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제4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연과 필

연이 절묘하게 교차되면서 주인공 운명의 밑바닥에 깔린 한국 근현대사의 좌우대립을 보여준 작품이다. 1970~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 작가인 이병주는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나의 문학은 골짜기를 그린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삶의 진실에 대한 충실하고 아름다운 기록으로 독보적 문학세계를 일군 그를 따라 많은 후학들이 문학의 길을 걸었다.

양형모 기자

엄마 아빠 어디가

●2017 대구치맥페스티벌(7월19~23일 대구 두류공원 일원)



대한민국 치맥의 성지에서 벌어지는 음식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다. 두류야구장,

228주차장, 야외음악당, 두류공원로드 등 두류공원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한다. 메인 무대인 두류야구장의 치맥 프리미엄 존을 비롯해 친구와 연인이 즐기기에 좋은 치맥 라이브 펍,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치맥 피크닉 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치맥 글로벌존 등이 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치맥 쿨링카, 에어바운스 워터 슬라이드, 찾아가는 치맥공연단, 이동식 DJ제이 가, 치맥 아트프리즈존, 치맥 치킨런 등이 열린다.